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1 차 , 예수, 메시아, 신,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1, 예수, 메시아, 신, 2부입니다.

나머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말한 것과 내가 찾을 수 없었던 텍스트에 대해 몇 가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예수를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34절은 제가 읽고 싶었던 구절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현인과 교사들을 보낸다. 너희가 그들 중 어떤 자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어떤 자들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마을에서 마을로 쫓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가 사물의 더 넓은 맥락에서 메신저를 보내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은 예수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예수가 일을 하러 온다는 언어가 예수가 하늘의 영역에서 지상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선지자와 교사와 현자들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맹세를 하고 메시아라고 주장한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서지 않고 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63과 64에서, 나는 23과 24를 가지고 있었지만, 63과 64에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당신에게 명하노니,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 보시오. 그리고 예수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다니엘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에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예수가 자신을 가장 좋아하는 명칭으로 꼽은 것은 아마도 오해를 피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저는 신약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몇 개의, 여러 개의 신약 본문을 샘플링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으로 시작해서, 몇 개의 본문, 두세 개의 주요 본문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바울의 몇 가지 다른 것, 즉 예수가 누구였는지 가리키는 참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자신의 초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하고 싶은 곳은 골로새서 1장 15-20절입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가장 고귀하고 시적인 묘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매우 높은 그리스도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거나 바울이 예수를 그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 자신보다 못하지 않은 존재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20절에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좌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그가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마도 지혜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나, 어쩌면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지혜는 또한 창조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지혜는 또한 잠언과 구약 이외의 유대 문학에서 신의 이미지로 여겨졌습니다. 예수의 지혜는 또한 만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또한 예수, 즉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제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논의했는데, 아마도 아담의 사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곧 하나님 자신의 계시임을 제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창조의 대리인입니다.

예수는 또한 만아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아들에 대한 용어는 예수를 창조된 존재로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의 창조의 대리인이라는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과 상충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존재해야 하며, 예수 자신을 창조된 존재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또한 18절부터 시작하여 그 유일자입니다. 예수는 또한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는 유일자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과 15-20절은 매우 높은 그리스도론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유일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자 계시인 유일자, 만아들이신 유일자입니다.

즉, 만아들은 그가 매우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첫 번째 창조물보다 우월하고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지금 새 창조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1장은 바울과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5-20과 유사한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11절은 찬송가인지 아니면 바울이 썼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으며,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가 누구이고 바울과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6-11을

읽어보겠습니다. "...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6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2011 NIV는 "...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나머지 부분에서 특히 잠깐 살펴볼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6절에서 암시하듯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무언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등함, 이것이 그가 본질이나 존재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광과 지위에서 확실히 언급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분명히, 구절의 첫 부분인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존재 자체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글의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붙잡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잃은 것처럼 붙잡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저는 그가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영광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가 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본성을 취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됨으로써였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서 NIV는 그가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본 일부 번역본과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가 자신을 비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기 시작한다면, 그는 무엇을 비웠을까요? 그는 자신의 속성 중 일부를 제거했을까요? 아마도, 이 구절, 그는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자신을 명예롭게 만들거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은유였을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참여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높은 지위와 영광을 공유했고 하늘의 화려함에서 하나님과 동등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제 종의 본성과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발견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굴욕적인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자신을 비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그가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잃지 않았지만, 대신 무언가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종의 본성이며,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혐오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당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가 자신의 상황, 하나님과의 동등함,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무언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은 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낮추신 후에,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종종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것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구약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 45장 20절 이하, 이사야 45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것은 문맥에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를 피하는 문맥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과 16절, 진실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자신을 감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여라, 모여라, 열방에서도망하는 자들아, 무지하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아, 구원할 수 없는 복수형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지 선포하고, 그것을 제시하고,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것을 오래 전에 예언했는가? 누가 먼 옛날부터 선포했는가? 내가 아니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상과 구별하는 한 가지는, 과거에 선포했던 것을 현재에 선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22절: 땅 끝까지 다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상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23절: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이 온전하게 철회되지 아니할 말을 하였노라.

내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혀가 자백할 것이요, 그들은 나에 대하여,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과 힘을 말할 것이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발견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고, 모든 혀가 이사야 54장의 성취로서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명확한 본문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할 주권적인 주님으로 묘사하는 매우 고귀하고 높은 그리스도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이신 예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운 점은 우상 숭배의 맥락에서 나오는 이사야 54장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는 우주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독특성, 경배를 받을 만한 유일한 분,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지명된 것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식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에서 이사야 45장을 인용한 맥락에서, 다른 모든 주장자, 다른 모든 우상과 대조되는 배타적인 주님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그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구약성경의 또 다른 인용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구약성경 본문의 인용문을 통해 주님으로 식별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주님의 칭호는 신성과 주권의 칭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는 구약성경의 주님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창조물 전체의 주권자. 복음서의 다른 주제로 돌아가서, 바울은 또한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종의 언어를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성경에 따라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할 때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사야 52장과 53장, 고난받는 종의 본문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그의 백성을 대신하셨으며, 그의 희생이 백성을 대신한다는 것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특히 이사야 52장과 53장과 이사야의 종에 대한 구절을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사실은 아마도 적어도 그 중 일부는 다윗의 언약 언어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 주제와 언약 주제 측면에서 예수가 다윗에게 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항상 그것을 이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가 데이비드 매튜슨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릴 때, 적어도 몇몇 경우, 아니 많은 경우, 이것은 칭호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된 메시아,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약속을 성취한 기름부음받은 자로 지칭하는데, 복음서에서 예수가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저 이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칭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지만,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하나님인 예수,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창조의 하나님의 대리인, 창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분, 경배받을 만한 분,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오신 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 성경에 따라 죽으시는 분, 메시아,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매우 높은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울의 이해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구원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벗어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멈출 곳은 아마도 히브리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이 책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1장과 1~3절은 저자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앞에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성취의 때에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과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되신 요한복음 1장의 연관성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요한 복음 1장과 바울이 골로새서 1:15-20에서 말한 내용을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존재의 정확한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증거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현존하시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와 말씀을 전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격을 빛나게 하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영광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존재의 정확한 표상이며,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과 골로새서 1장, 그리고 복음서의 요한복음 1장과 관련된 이 모든 주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즉 예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시고, 자신에 대한 계시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는 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분이신 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창조물과의 관계를 계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머지 복음서,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제시를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1장과 5절에서 우리는 흥미롭게도 모든 천사적 존재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1장 5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공식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써 예수는 이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그 약속들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문들 외에도, 히브리서의 나머지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이전 계시를 모두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1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 성취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다양한 인물, 기관, 사건과 일관되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1장에서 천사와 비교되고, 모세와 비교되고, 여호수아와 비교되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안식을 가져오고,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희생과 비교되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언약,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크고, 더 큰 성전에서 섬기고, 심지어 더 큰 믿음의 모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위대한 것처럼, 12장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모범들만큼이나 예수님은 믿음의 훨씬 더 뛰어난 모범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전 계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의해 가려지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셔서 그것들이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도와 연관되거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지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히브리서가 상당히 높고 고귀한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하나님의 구속 활동의 절정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약의 희생 제도와 신권과 성전에서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중단점은 야고보의 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서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주목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관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농부가 땅이 귀중한 곡식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라. 가을과 봄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느니라. 너희도 참을성 있게 서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기 때문이니라. 형제자매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판사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5장의 처음 여섯 구절은 부자들을 정죄하고, 부자들이 부를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4절을 증명합니다. 4절은, 당신의 밭을 깎은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삯이 당신을 향해 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이 모든 언급은 1장 1절과 2장 1절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서 종말론적 심판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심판하러 오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광의 주님이 종말론적 심판관으로 미래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신약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텍스트 조각을 빌려서 예수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예수에 대해 이것을 증명하거나 예수에 대해 저것을 증명하는 것 이상을 발견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인된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죄의 용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현존, 새 언약의 실현, 성령의 부여, 미래에 심판하러 오심, 종말론적 심판자로서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역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 성취되고 제정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조, 우리는 이제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 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과 동등함, 하나님의 영광의 정확한 표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현재 거주하는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 성경 필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성취해야 할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드러났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와 바울 문헌,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본 그 밖의 문헌 샘플이 그것을 증거하는 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계시록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그리스도론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계시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종말론과 종말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는데 실제로 계시록은 그렇게 합니다. 확실히 특히 19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계시록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무리,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 역사 전반에 걸쳐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의 거래의 절정을 기록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계시록을 종말론과 종말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뿐이라면 계시록이 거의 모든 다른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주제, 특히 그리스도론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했듯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그리스도론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에서 시작하며, 요한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요한은 “나는 돌아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보았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10절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돌아서서 그 음성을 보았노라.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등잔이 있고 등잔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은 타오르는 불 같았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빛나는 청동 같았고, 그의 음성은 흐르는 물 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같았습니다.

내가 그를 보고 죽은 자와 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 있는 자니라 나는 죽었었고 이제 살아 있노라 거기서 멈추겠지만 요한이 본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묘사에서 몇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다니엘 7장에서 다시 한 번 사람의 승천하신 아들로 제시되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의 옷과 머리카락과 그의 머리가 양털과 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희다는 나머지 묘사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를 사람의 아들로 묘사한 후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요한은 다니엘 7장을 인용하지만,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 곧 태고의 날의 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면, 머리에 양털과 같이 흰 머리카락을 가진 분은 태고의 날의 분이므로 요한은 그 둘을 결합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하늘에서 승천하신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고대에도 존재했으며, 요한은 다니엘 7장에서 두 인물을 합쳐서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발이 용광로에서 빛나는 청동 같았고, 그의 음성이 흐르는 물 소리와 같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중 일부를 주목합니다. 이 고귀한 모습은 매우 분명하지만, 그의 얼굴은 빛나고, 태양과 같았으며, 모든 광채로 빛났습니다. 당신은 이 존재가 태고의 날,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시 한번 심판을 암시합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시작 부분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책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거의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귀한 인자이십니다.

이분이 태고의 날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분이시다. 이분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에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 있는 자요, 나는 죽었지만, 보라, 나는 이제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고, 나는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 우리는 그의 총명한 영광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초상화를 발견합니다.

다음 정지 지점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일 것입니다. 4장, 사실 두 장은 함께 있습니다. 4장은 신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의 왕좌만 묘사됩니다.

왕좌에 앉으신 신의 환상, 주권자, 재판관, 모든 것의 창조주. 그는 모든 창조물 위에 높이 서 계십니다. 왕좌는 그의 주권과 통치권의 상징이며, 아마도 그가 재판관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4장은, 글썄요, 무엇보다도, 당신은 또한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왕좌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확장된 동심원에는 네 생물, 24명의 장로, 그리고 천사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기능인 천사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 이 존재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8절에서, 그들은 낮과 밤, 네 생물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계시고 계시고 오실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런 다음 24명의 장로가 엎드려서 11절에서 노래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으로 그것들이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주의 거룩하고 주권적인 주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림을 얻게 됩니다. 그는 창조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5장은 그가 매우 친밀하게 관여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입하고, 구속하고, 구출하기 위해 손을 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5장으로 이끕니다. 요한은 여전히 이 천상의 왕좌의 방 장면에 있지만, 이제 그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새의 싹이자 구약의 약속의 성취이며,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는 이제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그의 창조물을 구속하기 위해 두루마리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5장의 마지막에 이르면, 우선 하나님 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꺼내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존재,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냥 보좌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이 보았음을 주목하세요. 요한은 하늘 전체를 뒤져보았는데, 거기에는 이 모든 고귀한 천사들이 있고, 그들 중 한 명도 그냥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걸어가서 두루마리를 꺼낼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가서 그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미 당신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글썄요, 1장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 사람은 고귀한 인자, 태고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5장은 매우 흥미롭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양이 5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9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당신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가져가 봉인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12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4장에서 하신 것과 같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합세하여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합세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보좌에 앉아 같은 경배를 받는다는 것을 지금 주목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한이 16장 22절에서 절을 하는 책의 맥락에서 그는 천사에게 절을 하고, 천사는 그에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 맥락에서, 어린양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어린양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경배를 받고 같은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서에서 본 주제의 거의 가장 완전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은 경배, 같은 헌신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어린양에게도 그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신교를 어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저자들이 아직 그것을 교회의 후기 신조와 고백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동일시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데 매우 편안합니다. 일신교를 어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는 맥락에서 천사든 인간이든 다른 존재를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동일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언급은 그가 교회들 가운데를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예수는 등잔대 가운데를 걷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교회들 가운데를 걷는 것으로. 2장과 3장을 가끔 읽어보세요.

그는 마음과 정신을 탐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압니다.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때 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보았는데 마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고, 이사야의 종의 노래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사야 53장의 종이었습니다. 계시록의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이 구절을 알아차렸고, 우리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입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을 말하는 세 가지 방식일 것입니다. 때로는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중 하나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중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의 구약 배경, 특히 첫 번째와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지칭하는 시작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는 단순히 첫 번째와 마지막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은 이사야 44장에서 바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맥락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은 거짓 신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두 확장은 이사야 44장과 하나님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설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계시고, 누가 계셨고, 누가 오실 것인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 가지 또는 그 조합,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들을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서 계시고, 그는 그 사이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1장 8절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하셨는데, 1장 17절에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고 죽은 자와 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오른손에 손을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 41장 44절에서 바로 나온 구절이 6절이고, 4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1장과 44장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구절 전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책의 맨 마지막인 22장 13절로 넘어가면 뒤로 돌아가서 12절을 읽어서 예수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곧 오리라. 내 상이 내게 있느니라. 나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입니다. 이 세 가지 칭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특히 우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예배의 맥락에서 이사야 41장과 44장의 구약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칭호를 취하는 데 매우 편안하며, 그것은 단지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의 선재성을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서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곳에 서 있으며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사야에서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헛되고, 사실상 노골적인 우상 숭배라는 맥락에서 나온 칭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과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맡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것은 요한이 구약성경에서 명칭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명칭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그보다 더 명확 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고,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흥미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활동을 행하기 위해 오심을 봅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활동과 일들이나 하나님의 특권과 역할이었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1장 5절과 6절).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른 신약 저자들이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명칭, 구약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취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장 4절로 돌아가 봅시다. 흥미롭군요. 1장 4절. 봅시다. 요한의 인사 중 일부, 그의 서신 인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에게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은혜는 세 가지 모두에서 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 가지를 은혜와 평화가 그들로부터 온다고 아주 쉽게 연관시킬 수 있는 암묵적인 삼위일체적 유형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었던 분으로 묘사되는데, 아마도 출애굽기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발전된 형태이거나 변형된 형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존재한다는 자가 너희에게 왔고, 나는 존재한다는 자가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냈으며, 이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는 나다”라고 말했을 때의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고, 존재했고, 앞으로 올 자는 아마도 출애굽기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확장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올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맥락에서 그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심판을 위해 오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암시합니다. 와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와서 이 땅에 개입하여 심판과 구원을 가져다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보라, 더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전체를 읽지 않겠지만, 요한이 하늘이 열린 환상을 보고, 거기에는 기수와 흰 말이 있고, 11절에 그는 정의로

심판하고 전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문이 계속되면서, 그는 싸움을 벌입니다. 종말의 싸움인데, 사실 그것은 전혀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입에서 칼을 내밀어 적들을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1장 4절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셨고, 오실 분이다. 즉, 그는 심판자로 오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심판자로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집행하러 오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요한이 신성한 특권,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꺼이 취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묘사 중 일부는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심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의 옷이 피에 적셔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언급하는 구약성서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특권을 취하는 데 매우 편안합니다. 곧 오실 분이며, 그 특권을 단지 하나님이 계셨고 오실 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22장에서 여러 참조를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곧 오리라, 이는 그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2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일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곧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신 예수는 1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성취합니다. 그는 존재했고, 존재하며, 앞으로 올 자입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성경적 신학적 강조에 대해 두 가지 요약を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다루시는 것의 절정으로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는 또한 하나님 자신과 같은 찬양과 헌신과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누군가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종의 언어와 심지어 사람의 아들의 언어, 그리고 단체와 개인 언어에서 보았습니다. 구약은 백성을 대표하고 언약에 완벽하게 순종하여 살 사람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됩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자 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진술은 제가 주요 강조점, 신학적 강조점 중 일부로 보는 것을 포착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예수, 메시아, 신, 2부입니다.